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6. 6. 11.(목) 13시

재외동포청,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기업 해외 판로 넓힌다

- 전북 기업 102개 대상 일대일 수출 상담...재외동포 경제인 노하우 전해
 - 한상네트워크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...대전,강원 등으로 확대 예정
- 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
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이 전북특별자치도(도지사 김관영)와 함께 전북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.
 - 재외동포청은 이달 11일 전주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‘2026 세계한상 수출상담회’를 개최한다.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, 코트라 전북 지원본부 등 지역 수출지원 기관도 함께 참여한다.
- 이번 상담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재외동포 경제인과 전북자치도, 코트라 전북지원본부가 초청한 해외 바이어 등 45명이 참가한다.
 - 이들은 전북 지역 중소기업 102개 업체와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며, 현지 시장 정보와 수출 비법을 공유할 계획이다.
 - 참가 기업들은 식품, 소비재, 생활용품, 산업 분야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해외 판로 개척 가능성을 점검한다.
- 앞서 재외동포청은 올해 1월 지자체와 협력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공모를 진행했으며,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 대전광역시, 강원특별자치도 등 3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했다.
 - 이번 전북상담회에 이어 선정된 다른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.

-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히고, 지역 기업과 동포 경제인 간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 -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“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글로벌 자산”이라며, “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, K-이니셔티브를 세계 각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” 밝혔다.
- 한편,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를 9월 28일(월)부터 30일(수)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.
- 제24차 세계한상대회 관련 정보는 ‘한상넷(<https://hansang.net>)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경제지원과	책임자	과 장 이경아 (032-585-3220)
		담당자	사무관 박용준 (032-585-3297)

